

지역사회의 창조력 극대화가 지역경쟁력이다

글 김보성 (사)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원 부소장

우리 사회는 1970년대 경제개발 단계에서부터 정치·경제·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예를 들면, 남한 면적의 11.8%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40%가 살고 있으며, 대학의 47.5%가 집중되어 있다. 또 의료기관의 55.6%와 공공기관의 93.1%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전화시설의 40%와 전용회선의 57%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 속에서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충분한 지방분권화를 이루기에는 중앙집중의 견고한 관행의 벽이 여전히 높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사회 각 분야에서 차츰 여러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지역문화예술의 변화

에 따른 진단과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문화예술적 전망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연예술의 분야에 대한 변화 추이와 대표적인 모범사례를 알아보려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전후의 공연예술 추이

아래 <표>는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3년마다 펴내는 『문화예술통계』(1995·1998·2001년)를 주로 참고하였으며, 불충분하거나 통계가 서로 많이 다른 경우를 고려하여 『문화예술』(1999년 8월호, 10~11월호)을 참고하였다.

<표>에서 보듯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을 경계로 공연예술의 양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상황만으로 보면 2000년 전체 공연 횟수가 1만

<표> 공연예술 연도별 행사 추이

(단위: 건)

구분 \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양악	2658	2658	2696	3047	3193	3832	3934	4168	4628
국악	617	1079	1002	1146	1380	1440	1884	1801	2192
무용	660	626	778	1080	1492	1323		1480	1521
연극	610	482	593	717	1406	1113	1300	1929	1794

- * 양악 : 성악, 기악, 작곡, 오페라, 종합
- * 국악 : 전통, 창작, 전통 및 창작, 국음악, 사물·민속, 기타
- * 무용 : 한국창작춤, 한국전통춤, 발레, 현대무용, 기타
- * 연극 : 정극, 뮤지컬, 국극, 악극, 마당극·창극, 마임·퍼포먼스, 기타

135회로 지방자치제를 시작한 1995년(5,990회)에 비해 약 2배로 성장하였다. 다른 나라와 평면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1995년 독일은 624개의 공공극장에서 6만 7,591건의 공연이 이루어졌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같은 해 총 5만 7,410건의 공연이 이루어져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에 비해 15~17.6% 정도의 공연 횟수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르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추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상세한 분석은 『문화예술』 1999년 8~11월호 등을 참고 바람).

양악의 추이

23년간 국내에서 공연된 양악의 공연수는 3만 9,867회에 달하고 다른 장르와 비교하면 가장 많은 공연 횟수를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1991년 한 해의 오페라와 콘서트 공연 횟수가 각각 2천 회와 2만 회로 우리나라 양악공연의 23년간의 누적 횟수의 절반에 해당되는 정도로 우리

나라의 공연활동의 현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표〉에 나타난 수치로는 알 수 없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공연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공연 점유율이 1990년 48.3%, 1995년 52.7%, 1998년 50.2%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절대적이다. 아울러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대도시를 합한 공연수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양악공연의 5개 중 4개가 서울과 5개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음악공연문화와 음악교육의 환경이 왜곡된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작곡 분야가 전체 공연수의 3.1%에 불과한 현실은 '창작음악의 빈곤'이라는 결과와 직결되어 있어 음악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창작음악'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모 범 사 레 · 공연

'봄내(春川)'의 꿈들

1989년 14개 국내 극단과 일본 미노무시 극단이 참가, 총 40회 공연으로 시작한 『춘천인형극제』는 국내 대부분의 인형극단을 망라할 뿐만 아니라, 인형극 건본시와 아마추어 인형극 경연대회, 인형극 대본공모, 인형극 워크숍 등 축제를 통한 인형극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관련 활동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는 민간전문가 주도의 지역축제이다. 1995년도 우수 지역축제로 작성된 연구보고서는 축제연구가들의 기본교재가 되고 있다.

같은 해에 시작된 『춘천마임축제』 역시 예술, 축제, 전통, 교육의 4대 정신으로 한국의 몸짓과 세계의 마임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민간 주도의 공연예술축제이다. 독특한 문화관광상



『춘천인형극제』의 모습

품 '도깨비열차'를 개발하는 등 관객개발을 위한 성공적 마케팅 활동의 대표적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들 상설 축제조직은 춘천국제연극제 조직위와 함께 '축제기획자 워크숍'을 공동 주최하여 예비축제기획자 양성을

국악의 추이

1986년 아시안게임 및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3년 대전엑스포 등의 국제행사를 통하여 국악공연이 활성화되었다. 1998년도에는 국악행사의 61%가 지방에서 개최되었을 정도로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의 전통문예 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창작과 창작음악 등 국악 창작역량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무용의 추이

무용의 경우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전체 지방공연 건수의 총합이 서울을 앞지르고 있는데, 그 계기를 1992년 '춤의 해'에서 찾을 수 있다. 거의 춤의 모든 장르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전통춤에 대한 열기가 고양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연극의 추이

1990년대 이후 서울 대 지방의 편차가 대략 5:5에서 1996년 서울 대 지방이 4:6으로 반전되는데 특히 강원도와 경상남도 지역이 주목되고 있다. 국제인형극제와 마임축제로 잘 알려진 춘천과 거창, 마산, 창원 등지의 연극제와 공연활동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경남 지역은 1986년 12편이던 곳에서 1998년 126편이나 무대에 올려져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연극이 공연되기도 했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공연의 활력이 서울을 앞서고 있는 가장 확실한 장르로 연극을 꼽을 수 있겠다.

지역문화전문가 양성에 앞장서야

좋은 축제란 집단신명이 있어야 하며 또 참가자들의 자발성에 기초해야 하며 나아가 제의(祭儀)적 요소가

모범사례 · 공연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다. 다움아카데미가 주관하고 독립예술제, 서울연극제 및 춘천의 축제조직들 등과 함께 공동 주최한 '축제경영 전문 워크숍' (2000·2001년)의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되는 워크숍이 춘천 지역에서 지역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다.

'문화도시' 부천의 실험

앞의 춘천 지역 사례가 민간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공연예술 축제의 모범적 사례라면, 반대로 부천 지역은 시정부가 주도하는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공연예술축제를 유치 또는 조직하여 문화도시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사례

에 해당한다.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988년 창단되어 11년을 맞는 지금은 전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성장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사랑·환상·모험을 주제로 하는 비경쟁 국제영화제로 『부산영화제』 및 『전주영화제』와는 명확한 차별화를 이루며 독자적 영역을 확보한 대표적 영화축제이다. 4회 영화제를 경과하며 상설사무국 스태프의 전문성을 확보한 이후 지역 내 다양한 영상 관련 네트워크 활동의 구실을 담당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다양한 문화정책의 수립과 연구활동을 위한 정지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공공문화기반시설의 모범적 운영의 실천사례를 다양하게

깃들여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세계 전역에 동시에 유행시킨 전국 각지에서서의 거리응원축제에 모두가 붙은 악마가 되어 참가하거나 보면서 그러한 경험을 했을 지도 모른다. 이미 우리나라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가 공연예술축제와 지역특산물축제, 박람회 등 국제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축제에서 작은 마을 단위의 동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와 종류의 축제들이 1천여 개에 이른다. 그 중에서 필자가 모범사례로 소개할 만한 좋은 공연예술축제의 필요충분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 ① 참여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 : 관객 서비스의 질
- ② 축제 컨셉의 명확한 차별화 : 축제의 목표와 전망
- ③ 축제 프로그램 및 운영의 완성도 : 전문성의 제고
- ④ 지역의 문화적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 : 재원의 확보
- ⑤ 5회 이상의 지속성 여부 : 축제조직의 안정성과 지

역 네트워크 역량

지역공연예술축제의 영원한 동반자인 지방행정부와 민간전문가. 행정부의 문화담당 공무원들에게는 높은 문화적 안목을 견문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교육의 기회가 긴급하며, 민간문화전문가(조직)는 문화행정의 흐름을 습득하는 행정교육의 기회가 시급하다. 민선 3기를 맞는 지방자치체는 문화예술축제의 올바른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창조력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따라 지역(도시)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다. 서로 다른 두 지방도시의 사례를 통해서 필자는 최선의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지역정체성과 문화적 전문성을 함께 지닌 지역문화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지역문화 발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을 확보한 것이다.



축적하고 있다.

공공조직(시 문화예술과)과 민간전문가(조직)가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범적 사례를 축적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야외 공연과 『제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포스터

하고 있어 다른 지방정부들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부 정보화기금사업을 기획하여 부천 5대 문화사업 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수 없는 정책지향적인 기능 및 공간, 인력 네트워크를 실현하고 있는 지역이다.